비 오는 날 개들이 벤치에 앉은 후 생긴 일-후속편

news1

이상홍 기자

팀장 할머니부터 대리사과를 받던 당시의 견주와 개들의 모습

이 이야기는 3년 전인 2021년 5월 말에 벌어진 '비 오는 날 개들이 벤치에 앉은 후 생긴 일'의 후속 이야기로, 2022 기자의 세상보기에 수록된 작품의 후속편이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나는 제보를 받아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견주가 노인들에게 악성허위민원과 갑질한 사건에 대해 취재한 후 연속기사를 썼다. 보도 후 파장이 매우 커서 당시 견주의 민원을 받고 노인들을 불러 "견주가 사과를 원한다"라고 전달한 경기 양주시청에 전국 각지에서 비판의 전화연락이 쇄도했고,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다.

당황한 양주시는 기사의 일부 사실이 틀린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출구 전략을 짰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비 오는 날 견주와 만났던 할머니는 향후 견주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견주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것은 기사의 본질과는 다른 해석으로, 해당 할머니를 인솔하는 조장 할머니가 견주를 만나 사과했기 때문에 '노인이 견주에게 사과했다'는 보도는 맞는 사실이며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애매모호한 입장문 때문에 내 기사는 '노인이 견주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는 역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야 밝히는 일이지만 나는 보도하기 전부터 '조장 할머니가 대리사과'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러 그 사실을 비틀어 '노인이 직접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도하면 취재원이 곧 탄로 날 것이고, 그러면 나와는 달리 취재원들은 지역사회에서 관청의 압박에 견디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시청 공무원노조가 시청사 복도에 2달여 간 게시한 뉴스1 규탄 현수막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내가 고생했지만, 종래까지도 취재원은 보호했으며, 지금에 와서 되짚어보면 기자로서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라고 정신승리한다.

나는 후속 기사에서 견주에게 직접 사과한 이는 조원 할머니가 아니라 조장이었던 할머니가 대리사과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으며 그와 관련 동료 할머니들의 증언과 견주의 상세한 입장까지 보도했다. 또한 조장 할머니가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해 시청과 위탁기관 사이의 갑을 관계를 지적했다.

양주시와 공무원노조는 '뉴스1의 왜곡보도' 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 없는 왜곡기사로 직원이 죽는다' 는 문구의 현수막을 시청 내외부에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양주시 공직자 내부망 수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 에는 나를 지칭하면서 '가짜뉴스를 쓰는 기자' 라는 원색적인 비난 글들이 무수히 게시됐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나의 얼굴사진을 잘라내 옮겨 게시하더니 '인상이 X같다' 는 악플을 쓴 공직자도 있었으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영화)에 나오는 킬러가 쓰는 가스총으로 쏘고 싶다' 또는 '개XX' 라는 등의 악플도 게시됐다. '노인' 과 '개' 는 이 사건의 주요 키워드였으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는지 악플러들도 노인비하와 개를 활용한 비유를 썼다.

그러한 게시물과 악플들 또한 약 두 달 간 공직자 익명게시판에 방치됐다. 그리고 시는 자신들이 각종 홍보예산과 식대 대리지출 등으로 관리하는 각 로컬 및 출입 언론사들에 '왜곡보도에 강경 대응한다' 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홍보예산에 길들여진 관변 언론사들 일부는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내가 침묵했던 두 달 동안 익명게시판에 자신의 실명을 올리면서 "이번 허위기사 대응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큰일을 해냈다. 우리의 힘을 믿는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들만의 댓글로 환호와 칭찬을 받았으며, '왜곡보도에 당당히 맞서 대응한 사례를 인정받아 승진해야 한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노조위원장이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부시장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을 첨부했다(당시 시장은 위중한 병환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평소 나와 친분이 두터워 만약 그가 건강했더라면 이런 일은 미연에 나와 소통해서 해결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별개로 당시 악성민원 장본인이자 그가 키우던 개 '시바견' 을 추종하는 이들이 모인 '시바나라' 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를 저격하는 일들이 도모되고 있었다. 그곳의 수장인 '시바사마' 라는 이는 나를 '가짜뉴스' 를 보도한 기자라고 저격한 서울신문 인터넷이슈 담당 김 모 기자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 를 했다. 또한 나의 메일주소와 페이스북 등도 '시바나라' 에 까발려졌고 시바사마의 좌표 찍기 글을 본 시바견 추종인들이 몰려들어 내게 악성 메일을 무수하게 보내왔다.

한편 양주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나와 뉴스1을 제소했고, 변론 기일 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다가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비화됐다. 당시 한 중재위원은 "어째서 양쪽이 다투죠? 견주 측과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시의 간부 공무원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양주시가 뉴스1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년 뒤인 2023년 2월12일 뉴스1의 승소로 판결났다. 양주시는 뉴스1을 상대로 자신들이 작성한 정정보도문 72시간 게재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의정부지법 민사12부(판사 김지선 김한철 두홍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견주의 민원전화를 받은 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직원이 노인일자리 위탁수행기관인 양주YMCA에 민원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

[단독] 강형욱도 분노한 견주 갑질.. 알고보니 "가짜뉴스"

입력 2021. 06. 05. 12:36

15 43

80대 노인이 견주에 사과? '사실무근'
자극적인 제목과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
마녀사냥으로 번지자.. 시·주변 나서

견주와 시청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 뉴스1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으나, 오히려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기사의 원제목

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탁기관은 양주시로부터 견주의 민원내용을 전달받은 직후 이 씨(70대 할머니)에게 사과를 권유했고, 이 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이씨를 인솔하는 조장 신 씨(70대 할머니)가 2021년 5월31일 오전 견주 A 씨를 만나 민원내용에 관해 사과했으며, 이후 위탁기관 담당자는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 양주시 직원 고 모 주무관에게 전화해 민원을 처리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기관은 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양주시는 위탁기관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서류제시·시정요구할 수도 있는 바, 양주시와 위탁기관의 관계에 비춰 위탁기관이 조장 신 씨가 견주 A 씨에게 사과하도록 한 것은, 양주시가 위탁기관에 A 씨의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과 달리 견주와 언쟁한 할머니가 사과하지 않았고 대신 그 할머니를 인솔하는 조장이 사과한 것이 사실이며, 이 부분 보도내용은 진실하지 않다. 그러나 해당 보도 다음 날인 6월4일 양주시 측은 이 사건 보도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에 배포했고, 뉴스1도 해당 할머니가 견주에게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후속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보도의 주된 내용은 '견주의 민원에 대한 원고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정당하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던 노인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실제로 사과한 사람이 이 씨인지 조장 신 씨인지는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 입장에서 세부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은 2주 후 확정됐다. 양주시는 변호사 자문 등 자체 논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후 양주시 공직자들 중 연락이 두절됐던 지인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축하한다"는 말이었고, "이제는 시청 좀 들어와서 홍보기사도 다뤄 달라"는 얘기였다.

허위 악성 민원을 했던 견주 부부의 경우 사건 발생 초창기에 나와 통화로 설전을 벌이다가 끝내 허위 글을 내렸고, 그로 인해 나는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일개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나의 쟁송을 하고 있었다. 나를 공직자 익명게시판에 비난했던 악플러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였다. 나는 시청 내부자들의 도움을 얻어 익명게시판 내용을 전해 들었고, 당시 친분이 두터웠던 시의원이 두 달 분량의 익명게시판 내용 전체를 인쇄물로 출력해 내게 전달해주었다. 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장 악랄한 내용의 글을 쓴 대여섯 명을 추려 노조위원장까지 포함해 고소했다.

경찰은 시청사를 압수수색했고 동시에 정부청사 새올 서버관리기관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들은 곧장 특정됐다. 그들 중에는 내가 평소 알던 공무원도 있었다.

노조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그러한 악플들을 권장한 바도 없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그는 수사가 본격 개시되자 노조위원장을 사퇴했다. 노조위원장을 발판 삼아 사무관 승진까지 노렸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 같은 직급이다.

악플러 4명 중 2명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나는 이들의 첫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관했다. 재판 내내 상대측 변호사는 나의 보도에 대해 여전히 '오보'라고 주장했고,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직자 내부 익명게시판 내용을 접했다는 식의 해당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변론을 펼쳤다.

공판이 마무리 될 때쯤 나는 방청석에서 손을 들었다. 재판장이 내게 발언기회를 줬고 나는 양주시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 내 기사의 진정성, 양주시를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견주의 행태와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뿐임을, 그리고 피고인들은 내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으면서 사과할 의도로 접촉 시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재판장에게 진술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나를 보자 매우 당황했다.

법정 밖을 나오면서 나는 변호인에게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차례 통성명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아, 예, 예"하면서 자신의 의뢰인들을 그대로 둔 채 혼자 빠르게 걸어 가버렸다. 남겨진 피고인들은 내게 말을 걸어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합의할 경우 돈 때문에 고소한 것 아니냐고 루머가 돌 것을 염려해 합의하지 않았다. 이후 두 공무원은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판결 소식을 접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를 나의 상사에게 보고했더니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왜냐면 해당 기자는 나에 앞서 양주시부터 취재한 상태였다. 내가 마지막 취재 대상이었던 것으로, 이는 내 취재 경험으로 보건대 적극 해명하지 않을 경우, 내게 불리하고 양주시의 주장 위주인 기사가 나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 순으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했으며, 민완기자인 그는 매우 훌륭한 보도를 했다(이 평가는 제3자들이 한 것이다).

나는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두 공무

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액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로써 모든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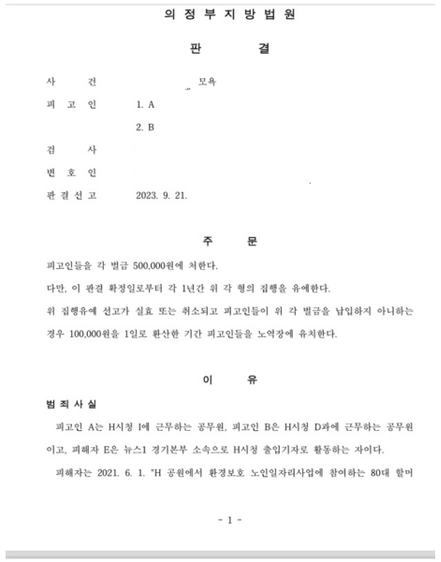
나는 또 양주시의 '초기 왜곡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 쓴 서울신문 인터넷이슈 담당 김 기자에게도 잊지 않고 연락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바이라인으로 내가 양주시를 상대로 승소한 사실을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그 기자는 과거 나의 항의에 '나는 암일지도 모른다'며 엉뚱한 약자 코스프레를 한 인물이었다. 나는 그 사실도 거짓일 경우 나를 기망했으므로 확인해 대응할 결심이었다. 김 기자는 내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자신의 부장을 통해 내게 연락해왔으며, 나는 그 부장에게 '김 기자가 과거 암일지도 모른다고 나한테 주장했는데 사실이냐'고 체크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뉴스1의 승소 사실을 보도할 것을 권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해주는 나의 마지막 예의이자 경고였다. 나의 내심은 그런 기사를 송고한 그 회사 데스크들과 그 윗선에게까지도 책임을 지울 계획이었다.

서울신문은 판결문 내용 요약과 함께 나의 주장도 담아 보도했다. 이로써 나는 내가 당했던 언론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바로잡았고 나름대로 모두 이겼다.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러는 동안 자그마치 2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른바 '또라이'로 통하는 것 같기도 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견주 부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차라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예의 바르고 늘 홍보기사를 써 주던 기자였던 나를 만만히 보고 그러한 무모한 짓을 벌인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들에게 잊고 싶은 트라우마일 것이다.

또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양주시에 거주하며 종종 양주시 공무원들을 마주치고, 어떤 대범한 양주시 공무원과는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그들 중 일부는 나와 술을 마실 때는 주변에 같은 회사 직원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양주시장이 바뀐 뒤 시장이 뉴스1과 나를 상대로 그 일을 벌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 홍보부서 실무자도 교체됐는데 예전부터 잘 아는 홍보팀장이었다. 홍보부서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는 양주시에 대한 우호적인 홍보기사를 쓰기도 한다. 없어졌던 홍보예산도 복구됐다.

그 3년 사이 우리사회에서 '개'에 대한 대우가 눈에 띄게 격상해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다. 3년 전 나의 첫 보도를 본 '개통령' 강형욱 씨는 "이건 견주님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아 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진 바 있는데, 그 강형욱 씨는 최근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이른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모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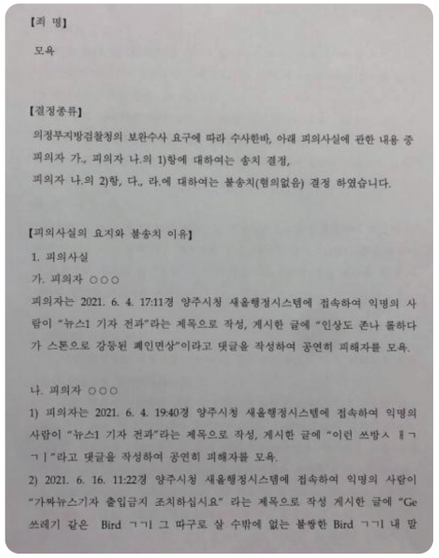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시청 1에 근무하는 공무원, 피고인 B은 H시청 D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E은 뉴스1 경기본부 소속으로 H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1. 6. 1. "H 공원에서 환경보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80대 할머니가 2021. 5. 28. 입마개를 안씌운 대형견 2마리가 옥정공원 벤치를 더럽히자 견주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견주의 격한 항의 및 민원을 받은 후 H시청 측에서 노인봉사단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 사과하라'고 하여 C할머니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80대 할머니가 같은 자리에서 개들이 짖고 있는 가운데 견주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2021. 6. 3.자 인터넷 뉴스1에 "[단독]개들 앞 불려가 고개숙인 80대 할머니...입마개 요청이 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H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언론의 부실한 사건취재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 왜곡해

모욕 혐의 약플러 공무원들 판결



【죄 명】

모욕

【결정종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한바, 아래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 중 피의자 가., 피의자 나.의 1)항에 대하여는 송치 결정,

피의자 나.의 2)항, 다., 라.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가. 피의자 ○○○

피의자는 2021. 6. 4. 17:11경 양주시청 새울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익명의 사람이 "뉴스1 기자 전과"라는 제목으로 작성, 게시한 글에 "인상도 존나 물하다가 스톤으로 감동된 폐인면상"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나. 피의자 ○○○

1) 피의자는 2021. 6. 4. 19:40경 양주시청 새울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익명의 사람이 "뉴스1 기자 전과"라는 제목으로 작성, 게시한 글에 "이런 쓰방ㅅ ㅐㄱㄱㅣ"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2) 2021. 6. 16. 11:22경 양주시청 새울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익명의 사람이 "가짜뉴스기자 출입금지 조치하십시요" 라는 제목으로 작성 게시한 글에 "Ge 쓰레기 같은 Bird ㄱㄱㅣ 그 따구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Bird ㄱㄱㅣ 내 말

모욕 혐의 공무원들 수사결과통지서

공무원들은 어떤가.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들의 '좌표 찍기'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큰 여론을 만들어냈다. 일반 근로자나 민간인이 사망하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인 현상이다.

그에 힘입어 양주시 홈페이지 조직도와 직원소개에도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 예비 피해 호소인인 이 공무원들은 3년 전 나를 자신들의 그물망에 박제하고 좌표 찍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은 바 있다. 나는 그들이 약자 코스프레 하는 모습이 두려우면서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3년 전 예상했듯이 나는 나름의 승리를 쟁취했고 내공을 키웠으며 귀한 인생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황하게 기억을 되짚어 기록한다.

뉴스1 이상휼 기자